

미국 쇠고기 문제 다룬 <패스트푸드 네이션>

‘똥버거’ 먹는 브루스 윌리스, 혹시 괴담 배후?



“고기에는 원래 똥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익혀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웬 ‘명박스러운’ 혹은 ‘윤치승’ 발인인가?

영화 <패스트푸드 네이션>에서 자신이 다니는 패스트푸드체인 ‘마커스’의 주력 상품인 ‘빅윌’ 햄버거 고기에 똥이 들어있다는 정보를 들은 영업부 이사 돈 앤더슨(트레키니어)은 진상 조사를 위해 공장이 있는 콜로라도로 간다.

그 곳에서 만난 쇠고기 딜러 해리(브루스 윌리스)가 게걸스럽게 햄버거와 맥주를 먹으며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하는 말이 바로 “고기에는 똥이 들어가기 마련, 익혀 먹으면 문제없다”다.

먹는 이의 불안감을 생각하지 않은 채 쇠고기 도축업자들의 주장만을 말하는 해리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목을 맨 정부 관계자와 너무 똑같이 침묵하기까지 하다.

2006년 제작되어 이번이 드디어 한국에 공개되는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의 감독의 <패스트푸드 네이션>은 제록스 대로 ‘패스트푸드 제국’이 된 미국을 사실감 있게 그린 극영화다.

맥도날드와 버거킹의 아성을 무너뜨리며 승승장구하는 패스트푸드 체인 ‘마커스’. 그 발전 뒤에는 뿌리깊이 박힌 미국의 병폐들이 숨어 있었다. 영화는 바로 그 미국병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낯은, 그러나 힘 있는 자성의 목소리다.

돈은 소를 도축하는 공장

을 찾아 가지만 깨끗한 기계설비와 위생 마스크를 쓴 노동자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과거 목장을 경영했지만 기업화에 밀려 지금은 황폐한 땅 밖에 남아있지 않은 루디(크리스 크리스토퍼슨), 쇠고기에 오염 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제될 것 없다”고 말하는 쇠고기 딜러 해리를 만나면서 돈은 혼란스럽다.

사실대로 밝혀야 하지만 돈은 그럴 수 없다. 그랬다가는 바로 직장에서 쫓겨나야 하니까. 돈은 결국 회사 시스템에 순응하는 삶을 택하고 아무런 가책 없이 회사로 돌아와 증역회의를 한다.

쇠고기 도축 공장에는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이민을 온 이주 노

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한 달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하루 일하고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소의 목을 자르고 내장을 꺼내는 일을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기계에 팔 다리가 잘려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 길로 공장을 나가야 한다.

공장주들은 본사에서 조사하러 나오면 깨끗하게 관리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아니, 오히려 내부 공개를 하지 않으려 한다. 햄버거 고기 속에는 이주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담겨있고 미처 정제하지 못한 배설물까지 담겨 있다.

실비아(카탈리나 산다노 모레노)는 남편 라울(윌버 바더라)과, 여동생과 함께 이민을 오고 함께 도축 공장에

서 일하게 되지만 곧 공장을 나와 호텔 청소부로 일한다. 그러나 남편 라울이 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자 자진해서 다시 공장으로 들어온다.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목이 잘리고 내장이 꺼내진 소들이다.

본사에서 조사하러 나오면 공장들은 깨끗한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검역에 무신경하다. 공장 내부도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 지금 쇠고기 검역 주권은 미국에 있다. 검역을 강화한다고 말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빅윌’ 하나에 미국의 병폐가 들어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엠버(에슐리 존슨)는 마커스의 한 체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엠버가 사는 마을은 마커스 체인점이 들어서면서 경기가 살아났고 엠버는 체인점에서 일하며 자동차 보험료를 낸다.

성실하게 일하던 엠버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엠버의 외삼촌 피트(에단 호크)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면서 “열정적으로 산 사람들은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자기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엠버에게 말한다. 그리고 앨리스(에이브릴 라빈)를 위시한 환경운동가 그룹을 만나면서 엠버는 마침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



“나 역시 조중동과 다를 바 없었네”

기계적 ‘상호주의’, ‘대북강경론’에 대해 생각하다

영화 <크로싱>은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북한 주민의 실상과 탈북 과정을 리얼하게 그려 개봉 전부터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다.

영화는 폐결핵에 걸린

아내의 약을 구하기 위해 탈북을 감행한 ‘용수’ (차인표 분)가 북한에 홀로 남겨진 자신의 아들 ‘준이’ (신명철 분)와 다시 만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준이는 아버지 용수를 만나기 위해 황량한 아시아대륙을 ‘크로싱(횡단)’ 한다.

<크로싱>은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간 후에도 오래도록 가슴 한쪽에 축축한 물기를 머금게 하는 힘이 있다. 이처럼 긴 여운을 줄 수 있는 바탕에는 이 영화가 꾸며진 이야기가 아닌 지금도 여전히 목격할 수 있는 처참한 ‘사실’이라는 점과 그 사실을 외면하기 힘든 동족으로서 슬픈 ‘공감’이 있기 때문이다.

<크로싱>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동안 과연 얼마나 북한주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였

다. 고백하자면 일부러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의 ‘인권’과 ‘굶주림’ 문제는 이른바 ‘조중동’이라는 보수언론이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자주 사용해 왔던 문제였다는 점에서 괜한 거부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보수언론이 거론하는 북한주민에 대한 기사를 볼 때마다 남한의 극빈자, 소수자, 이주노동자의 빈곤과 인권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유독 북한의 인권과 굶주림 문제에는 극단적일 정도로 관심을 가지는 그들의 태도가 못마땅했다. 또 그런 문제를 거론하는 기사에 뒤따르는 것은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어

떤 지원과 경험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북한과 관련한 보수언론의 논리를 비유해 보자면 이런 것이다. 악덕 원장으로 인해 굶주리고, 핍박받는 고아원생이 불쌍하지만 원장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때까지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지원과 보호를 하지 않겠다. 이는 지극히 모순적이며, 그 진정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햇볕정책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나는 햇볕 정책이라는 ‘방법론’에만 매몰된 채 북한 주민의 참혹한 현실은 외면하는 모순을 저지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크로싱>은 북한 주민의 ‘굶주림’과 ‘인권’을 대하는 그동안의 나의 태도를 반성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든 생각은 ‘그럼에도 햇볕정책만이 북한 주민이 살 길’이라는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원장이 잘못했다고 해서 고아원 아이들을 계속 굶게 두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마찬가지로 북한 김정일 정권이 밟다고 해서 북한 주민을 계속 굶주리게 두

중국 쓰촨에서 <쿵푸팬더>가 상영금지된 이유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해 질시 느끼는 중국인들

고 깊은 밤에 물레 목장의 소들을 풀어주는 구상을 하게 된다. 마커스에 납품되는 소들의 목장은 환경운동가 그룹의 표현을 빌면 "소들의 배설물이 텐버시 인구 전체보다 더 많고, 그 배설물을 정화처리 없이 그대로 버리며, 10만 마리의 소들이 자기의 배설물이 섞인 유전자 변형 사료를 먹으며 걸러지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청춘을 보낸다는 것은 엠버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던 것. 마커스의 주력 상품 '빅힐'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자. 배설물 섞인 유전자 변형 사료를 먹인 소는 공장에서 멕시코 이주 노동자들의 손으로 도축된다. 검역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고기들이 패티로 만들어져 체인점으로 보내지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들의 손을 통해 햄버거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의심 없이 미국인의 입에 들어가며 그로 인해 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회사는 말한다. "손님을 죽이지 마라. 손님이 없으면 팔아먹을 대상이 없다." 햄버거 하나에 미국자본의 뽀빠리가 숨어있는 셈이다. 갑자기 햄버거 먹기가 정말 꺼려진다.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미국은 철저하게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다. 자본이 우선인 사회에서 국민의 삶과 안전은 2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대량 생산라인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걸러내지 못 불가능하는 것, 그렇지만 고기를 익혀 먹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본 지상'의 논리가 미국에서 통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쇠고기 수입 문제도 따지고 보면 '경제 지상' 논리를 앞세운 것 아닌가? 조·중·동은 쇠고기 개방을 안 하면 FTA도 없고 이는 국민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또한 미국과의 마찰을 이유로 재협상을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자본가의 논리를 미국 영화인들은 이미 2년 전에 <패스트푸드 네이션>을 통해 비판했다.

브루스 윌리스는 자신 출연을 결심한 뒤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며 에이브릴 라빈은 망설임 없이 극영화 데뷔작으로 이 영화를 택했다. 배우들에겐 영화에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목소리 내기'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 쇠고기 도축을 비판하는 '낮은 목소리'는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미국 영화인들의 경고로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은 영화인들을 괴담의 배후조종자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닐까? 영화를 미국 내 좌파 문화인들의 선동으로 낙인찍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그만큼 지금 별의별 짓을 다하며 미국 자본가 말만 따르는 게 이 정부니까.

임동현 기자 lovewi19@hanmail.net



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결국 문제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북한 주민을 도와주는 길은 무엇인가'이다. 보수언론과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하나를 받아야 하나를 줄 수 있다'는 이른바 기계적 '상호주의'나 '대북강경론'은 이미 경험에 의해 길이 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 이는 부시 정권의 대북정책 변화에서 잘 알 수 있다. 부시 정권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강경일변도 정책을 펼쳤을 때 북한은 핵을 만들려 했고, 더욱 고립되었다. 하지만 온건정책으로 돌아선 지금은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을 신고하고, 영변

문동섭 기자 moons75@lycos.co.kr



6월 23일 인민일보 기사 <쿵푸팬더와 문화충격> 인민일보

영화 <쿵푸팬더>에 대해 중국 언론의 시기와 질투가 예사롭지 않다.

<인민일보>는 6월 23일 문화면 기사 '쿵푸팬더와 문화충격'에서 중국 고유의 '문화 원형을 약탈해서 우리(중국)의 문화 보루를 넘어 문화식민을 도모한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자신들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인 쿵푸와 판다의 매력을 빼앗아 간 것을 "1840년 이후의 굴욕적인 아픔"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중국의 중앙 관영 신문사가 <쿵푸팬더>를 아편 전쟁과 비교하면서 '세계의 문화 중심인 중국이 중화사상에 입각한 창의적인 감각을 서양인들에게 탈취 당했다'는 감정을 토로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관영 및 당 기관지의 대응은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개봉한 <쿵푸팬더>에 대해 중국이 문화산업 또는 중화주의에 대한 방어벽을 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하지만, 6월 19일을 전후로 개봉한 <쿵푸팬더>에 대한 중국 관객들의 반응은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게 아주 뜨겁다.

원자로 냉각탑도 폭발하겠다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더 보자면 이명박 정권이 대북강경론에 다른 아닌 기계적 '상호주의'를 표방하자마자 대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고, 우리나라는 대북문제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대북강경론은 남북관계의 호전은 물론 북한주민들의 생존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햇볕정책'은 어떤가?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평화적 남북경협은 북한주민들에게 경제활동을 제공해주었으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을 사실상 개성 위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했다.

정리하자면 결국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고 북한 주민을 위한 길은 '햇볕정책'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영화 <크로싱>은 우리가 대북정책에 대한 노선차이로 감론을 박하는 순간에도 북한 주민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절절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대륙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 언론매체 중 하나인 광저우의 <남방도시보>는 6월 21일 '영화 쿵푸팬더 박수갈채 스무 차례'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당시 관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족도에서 5점 만점에 4.41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전했다. 또 63.83%가 '판다가 매력적인 중국문화 소재', 약 20%가 '청룡의 다방이 인상적'이었다고 답했고 무려 20여 차례나 웃음과 박수가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영화 <쿵푸팬더>의 소재인 쿵푸와 판다를 직접 중국 현지에서 본 나는 과연 할리우드 문화자본이 어떻게 스토리와 이미지를 그려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6월 24일 저녁 <쿵푸팬더>를 봤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웃음이 서서히 나올 정도로 <쿵푸팬더>는 재미있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불편한 것 몇 가지가 눈에 띄었다. 주인공 공 포를 비롯, '무적의 5인방'과 사부들, '포'의 아버지를 빼고 간혹 거위 몇 마리가 보이는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왜 전부 돼지와 토끼뿐일까. 내가 아는 한 영화 마니아는 이를 '자본주의(돼지)'와 '사회주의(토끼)' 체제로 설명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표범 '타이랑'에 맞서 '지구를 지키는' 호랑이, 학, 뱀, 원숭이, 사마귀 5인방은 쿵푸 권법에서 만든 캐

판다는 쓰촨 및 중국의 것 미국의 악의적인 조롱 못참아

릭터이지만 미국, 러시아,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 강국의 이미지와 겹쳐지는 것은 지나친 연상일까.

실력이 모자라지만 꿈속에서도 쿵푸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평범한 판다 포는 '용의 전사'로 지명 받는 '웃기는' 시주에 이선에 처하게 된다. 포는 계단도 힘에 겨워 제대로 오르지 못하는데도 그리스 올림피아 제전이 연상되는 경연장에서 로켓포를 타고 날아올라 하늘에서 '우연하게' 떨어져 '전사'로 지명 받는 다. 이쯤 되면 베이징 올림픽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영화에 등장하는 공간적 배경은 나예겐 아주 익숙했다. 중국의 쿵푸 권법, 판다 외에도 자연과 건축물, 갑옷이나 소품, 길거리들에 대해 아주 많이 연구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려 4년 반을 준비한 프로젝트답게 디테일 곳곳에 '중국적'인 문화가 많이 묻어 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다. '왜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것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을 질시와 의혹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중화'라는 틀 속에 가둘 수 없어서일까. 이 대륙에서 쓰촨 지역 <쿵푸팬더> 상영금지 조치를 이끈 자오반디의 이야기를 해보자.

판다 예술가를 자처하는 자오반디는 쓰촨의 지진 발생지에서 판다 인형을 머리에 쓰고 다니면서 유명해졌다. <쿵푸팬더>의



중국 상영을 앞둔 시점인 6월 15일 그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할리우드 배우 샤론 스톤의 '인과응보(타이벳) 시위와 관련해 쓰촨 지진 발생을 표현' 발언과 관련해 <쿵푸팬더>를 '꺼져버려!'라고 하면서 '할리우드를 문화 강도'라고 지칭했다. 6월 18일에는 '나는 왜 <쿵푸팬더>를 배척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판다는 쓰촨 및 중국 것이고, 미국이 악의적으로 묘사하고 조롱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영화로 한몫 보도록 놔두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는 인터넷을 통해 공분을 일으켰고 각 언론 매체까지 보도하기 시작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영화 심의를 주관하는 국가광전총국영화국은 쓰촨 지역의 <쿵푸팬더> 상영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물론 쓰촨의 상영금지 조치는 곧바로 해제됐다. 이런 논란 때문인지 쓰촨 청두에서는 개봉일 기준 사상 최고의 관객이 들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샤론 스톤과 할리우드를 동일시하는 자오반디의 논리도 무리고, 판다와 쿵푸가 중국적인 것이기에 안 된다는 논리는 '쿵푸와 판다는 전 세계의 것'이며 오히려 '세계에서 호평 받고 있는 영화인데 자오반디의 말은 아주 이상한 생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오히려 '중국의 문화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중국의 문화 원형이나 코드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징바오>의 기사가 힘을 얻고 있다.

이후 자오반디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판다를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과연 자오반디는 어떤 영화를 내놓을지 궁금해진다. 판다는 중국의 것이지만 더 이상 중국만의 것이 아니기도 하다. 문화 원형에는 저작권이 없다. 더 이상 소재만을 논란 삼지 말고 그 속에 숨은 영화의 미학이나 산업의 정치경제적 해석에 대한 뜨거운 논쟁 기사를 보고 싶다. 유치한 논리보다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중국 사람들의 치열한 고민이 있다면 국보 '판다'를 잃고 그저 영화 속 '돼지'이거나 '토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영 기자 newonoff@hanmail.net